노(能)에 그려진 노녀들의 삶과 죽음

-『檜垣』『姨捨』분석을 중심으로 -

김충영*
kcy33@korea.ac.kr

Contents

1. 들어가며
2.『히가키(檜垣)』노녀의 삶과 죽음
3.『오바스테(姨捨)』노녀의 삶과 죽음
4. 맺으며

1. 들어가며

일본 중세의 무로마치(室町) 초기에 이루어진 고전극 노(能)에는 흔히「三老女」라 불리며 유달리 귀하게 여겨지는 작품 셋이 있다.『히가키(檜垣)』『오바스테(姨捨)』『세키데라코마치(関寺小町)』등이 그것들인데, 주인공이 노녀인 작품들이라는 의미에서「三老女」라 불리는 것이다.

이들 작품이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가짜『風姿花伝』으로서 室町 말기에 나와 한동안 진짜 행세했던『八帖花伝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여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 이 작품들은 名人이나 베테랑급이 아니면 함부로 연기해서는 아니 된다. 보통의 연기자라면 결단코 삼가야 할 것이다. … 옛날의 명인도 이들을 모두 연기한 적은 없다고 …
>
> (此等は、名人・劫経ざる人は、囃子候事、誠しからず。大概の打手ならば、固く斟酌すべし。…昔の名人も、是らをば、終には囃し済したる事はなきなどと…[1])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三老女」를 무척이나 진중(珍重)히 여겨, 최고의 경지에 오른 베테랑 연기자가 아니면 그 주인공인 노녀 역을 함부로 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록 가짜『風姿花伝』이긴 했어도,『八帖花伝書』는 室町말기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노(能)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저술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명인 급의 연기자라 하더라도 이 세 작품의 노녀를 모두 다 연기한 사람은 없었다는 부연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으니, 이들 작품들에 대한 당시 연기자들의 경외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케 해 준다.

다만 이와 같은 연기자들의 경외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 토대를 둔 것인지에 관해서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저 연기적 어려움과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클 것이라는 다소 막연한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이 경우 연기적 어려움이라는 것은 남자인 배우가 나이든 老女의 연기를 제대로 해야 하는 과제에 수반되는 난점을 가리킨 말이 되겠다. 이것은 연기의 외적인 측면이 되는 셈이며, 위의『八帖花伝書』의 내용이 그런 외적 측면을 직시한 경외심의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은 일단 수긍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예능인들이 품는 경외심의 토대는 어느 한 측면에만 국한된 편협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내면의 무게를 짊어진 노녀를 제대로 연기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 그 연기의 내적 경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일 수도 있다. 어쩌면 내면의 무게와 관련된 이 내적 연기 경지에 대한 경외심의 개연성이 더 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다.

작품 주인공의 내면에 관해서는 그가 작품 속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 관련의 대사를 통해 엿볼 수가 있다. 단,「三老女」작품들 중『세키데라코마치(関寺小町)』의 경우는 주인공이 아직 살아있어 죽음 관련의 대사와는 거리가 멀다. 즉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들며 죽음의 세계로부터 삶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춘 다른 작품의 주인공들과는 사뭇 그 성격이 달라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세키데라코마치(関寺小町)』를 제외한『히가키(檜垣)』『오바스테(姨捨)』의 노녀가 토로하는 삶과 죽음 관련의 대사에 분석・고찰의 초점을 맞추어, 작품 속에서 짊어지워져 있는 그녀들의 내적 무게를

1) 中村保雄校注『八帖花伝書』제 7권 (日本思想大系23『古代中世芸術論』, 岩波書店, 1973 수록) p.65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가늠해 보고자 한다.

2.『히가키(檜垣)』노녀의 삶과 죽음

『히가키(檜垣)』의 주인공은 헤이안(平安) 중기에 활약했던 여류 가인(歌人) 히가키(檜垣)이다. 와카(和歌)를 잘 지어『檜垣嫗集』이라는 私家集을 남겼으며, 소시 적에는 춤과 미모가 출중한「시라뵤시(白拍子)」(=舞女)로서 쓰쿠시(筑紫) 지방에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노래와 춤에다 미모까지 갖추었다니 그야말로 재색겸비(才色兼備)의 才女였던 셈이다.

才와 色 양면을 겸비한 才女의 대표 격으로는 오노노 코마치(小野小町)를 들 수가 있다. 그녀는 뛰어난 가재(歌才)에다 출중한 미모까지 갖추어 뭇 남성들의 흠모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걸로 유명하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연모의 정을 품고 접근해 오는 수많은 남성들을 홀대하여 원성 또한 많이 샀던 모양이다. 그 반작용이었는지 그녀 관련의 설화는 화려했던 소시 적과는 너무도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암울한 쪽으로 흘렀다. 그토록 잘 나갔던 소시 적과는 판이하게 달리 늙고 추하게 영락한 그녀의 노년을 사람들은 즐겨 회자했던 것이다. 소위 말하는「재녀영락담(才女零落談)」또는「재녀낙백담(才女落魄譚)」이 그것이다.

小町 정도는 아니지만, 히가키 또한 그와 같은「재녀영락담」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다. 즉 소시 적에는 그토록 유명세를 탔던 그녀였지만 노경에는 영락하여 노추(老醜)의 몸을 이끌고 만년을 살다 간 여인으로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던 것이다.

小町와는 달리 히가키의 경우는 소시 적의 이야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저『히가키(檜垣)』의 대사 중에

> 내가 옛적에는 무희로서의 명성이 세상에 드높아, 그 죄업이 깊은 탓에, 지금도 지옥에서 업고를 치르고 있소이다.
>
> (われいにしへは舞女の誉世に勝れ、その罪深きゆえにより、今も苦しみを三瀬川)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라고 생전의 무희로서의 유명세가 드높았던 사실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죄가 되어 사후에는 지옥의 업고(業苦)로 이어졌다고 와키 승려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에서의 대사이다.

『히가키(檜垣)』 작품 속의 그녀는 자신의 소시 적 삶을 회고하면서 종종 긍지와 죄의식이란 양면적 인식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위에 인용한 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명했던 무희로서의 자부심과 그에 수반되었던 죄업을 동시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무희로서 이름을 날렸던 만큼 뭇 남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미혹의 수렁으로 빠뜨린 죄 또한 컸다는 자백이다.

히가키 노녀는 살아생전에는 자신의 죄를 그리 절감하지는 못했던 듯하다. 이승에서는 노경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극심한 업고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절감하게 된 모양이다.

노녀의 망령이 와키 승려의 앞에서 토로하는 그 업고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 뜨거운 쇠 통을 짊어지고 맹렬한 불꽃이 이는 두레박을 드리워 물을 뜨는데, 그 물이 끓어올라 내 몸을 태우기를 쉼 없이 …
> (熱鉄の桶を担ひ、猛火のつるべを掛けてこの水を汲む、その水湯となってわが身を焼くこと隙もな…)

대개 지옥에서의 업고는 당사자가 생전에 자주 반복했던 행위에다 고통이 더해지는 식으로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히가키 노녀의 경우도 자신이 노경에 행했던 「汲水行」의 수행과 관련된 업고의 양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노경에 쓰쿠시(筑紫)의 시라카와(白河) 부근에서 「회나무 울타리(檜垣)」를 두른 암자를 짓고 만년을 지냈다고 한다. 거기서 내세의 복을 기대하며 「급수습신행(汲水拾薪行)[2]」의 「멸죄수행(滅罪修行)」을 행했던 듯하다. 그러한 사실을 암시하며 뒷받침해 주는 것이 후장(後場)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대사이다.

---

2) 천태종(天台宗)의 수행 중 하나이며, 불전(仏前)에 바칠 정화수를 긷고 후야(後夜)의 근행(勤行)에 보탬이 되고자 땔감을 줍는 행위로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한 「멸죄수행(滅罪修行)」의 한 형태가 되겠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무릇 새벽녘의 솥에는 북쪽 계곡의 물을 퍼 담고, 후야(後夜) 근행(勤行) 때의 아궁이에는 남령(南嶺)의 땔나무를 지핀다.
(それ残星の鼎には北渓の水を汲み、後夜の炉には南嶺の柴を焚く)

이 구절을 둘러싼 각 주석들은 하나 같이 「典拠不明」이라며 상세한 설명을 피하고 있으나, 『법화경(法華經)』「提婆達多品」제12에 보리(菩提)의 수행으로서 「採果汲水. 拾薪設食[3]」이라는 내용이 보여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히가키 노녀는 만년에 멸죄수행을 위한 「급수행(汲水行)」을 행했다는 사실을 『법화경(法華經)』의 이 내용은 뒷받침해 준다 하겠다.

그렇게 「급수행(汲水行)」을 하며 노경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히가키 노녀의 암자에 한 방문객이 있었다. 다자이후(大宰府)의 다이니(大弐) 지위에 있던 후지와라 오키노리(藤原興範)라는 인물이 우연히 그 앞을 지나다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자 잠시 들렀던 것이다.

작품의 후장(後場)의 대사는 이 에피소드와 관련된 노녀의 회상이 중심이 되어 한동안 이어진다. 그녀의 회상에 의하면,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신 오키노리는 노녀에게 몇 마디 말을 걸었던 모양이다. 그 대화중 노녀의 정체가 그 옛날 和歌와 춤으로 이름났던 히가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호기심이 동한 오키노리는 옛 명성을 되살린 춤사위를 보고 싶다며 춤을 추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자존심 강한 노녀는 늙고 추한 외양을 이유로 그 요청을 사양했다. 그러나 오키노리는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았다.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격려조의 말로 집요하게 설득했다.

아니 상관없소이다. 그래도 그 옛날 손에 익었던 춤사위라 (추어 보이고 싶은 욕망 또한 강할 터이니), 추지 않고는 못 배길 듯싶소만….
(よしよし それとても、昔手慣れし 舞なれば、舞はでもいまは かなふまじ…)

노추(老醜)의 외양을 빌미로 말로는 그렇게 사양하고 있지만 춰 보이고 싶은 욕망 또한 강할 것이라며, 한때 이름을 날렸던 예능인으로서의 舞姫의 끼를 자

3) 境野黄洋『法華経講義』, 名著出版, 198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극하는 설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격려와 권유를 병행한 이 오키노리의 설득법은 적중했던 모양이다. 거의 꺼져 있다시피 했던 노녀의 예능인으로서의 끼는 자극을 받아 서서히 되살아났고, 주저주저하면서도 늙은 노녀의 춤사위를 추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거의 사장되어 기억의 저편에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노녀의 옛 모습이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춤과 노래로 명성을 떨쳤던 왕년의 유명 예능인으로서의 프라이드가 되살아나는 것을 맛본 순간이기도 했다. 히가키 노녀로서는 노경에 꽃피운 「老木의 꽃[4]」이 된 셈이며,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뇌리 깊은 곳에 새기게 된 셈이다. 이와 같은 오키노리와의 일화는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으며, 죽고 나서 망령이 되어서도 떨치지 못하는 집심(執心)의 연원이 되고 말았던 듯하다.

무대 위에서의 『히가키(檜垣)』의 노녀도 와키 승려 앞에서 이 기억을 더듬으며, 작품 구성상의 클라이맥스 장면인 [序ノ舞]를 느릿느릿 추어 보인다. 이 춤은 노녀의 집심(執心)이 한껏 실린 것이 되며, 무대 위에서의 「老木의 꽃」은 여기서 활짝 핀다.

오키노리 앞에서 노경의 춤을 춰 보였다는 얘기는 『히가키(檜垣)』탄생의 모태인 전거(典據) 세계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전거로서 가장 유력시되는 『後撰集』의 「詞書」에도 오키노리가 물 한 모금 요청했다는 내용만 보일뿐 춤을 요청했다는 얘기 따위는 전혀 없다. 『히가키(檜垣)』의 작자 제아미는 춤 관련의 이 에피소드를 창작하여 작품 속에 짜 넣은 것이다.

그 이유는 노녀의 집심(執心)의 향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노녀의 망령을 시공을 초월하여 이승의 무대 위에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심의 구심점이 필요했으며, 그것을 「老木의 꽃」이론과 접목시켜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춤을 둘러싼 오키노리와의 추억이 창작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제아미가 최고의 가치를 둔 무대 위에서의 「꽃(花)」은 다름 아닌 「老木의 꽃」이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노녀가 추어 보인 춤은 그대로 「老木의 꽃」이 되어, 자신의 지난날을 기억해 주는 사람 앞에서 한껏 아름답게 만개할 수 있었다는 얘기로 각색되었던 것이다.

---

4) 拙稿 「謡曲『히가키(桧垣)』에 핀 <老木의 꽃>」(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제 70집. 2007.2)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 각색대로라면, 『히가키(檜垣)』의 노녀는 오키노리와의 만남 뒤에도 죽을 때까지 그 추억을 잊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내세의 복을 빌며 불전에 바칠 물을 길으면서도, 오키노리 앞에서 늘그막에 꽃피웠던 그 추억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던 것이 된다. 그리하여 그녀의 물 뜨기 행법에는 구제를 향한 도심(道心)에다 잊지 못할 이승에서의 집심(執心)도 함께 실리게 되었다. 죽은 후 지옥에서 받고 있다는 업고가 물 뜨기 행법과 관련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3. 『오바스테(姨捨)』 노녀의 삶과 죽음

『오바스테(姨捨)』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노녀는 이른바 「오바스테 전설(姨捨傳說)」의 주인공이다. 이 전설은 『大和物語』『俊賴髓脳』『今昔物語集』등의 문헌에 보이는데, 서로 유사하긴 하나 약간씩 다르다. 노(能) 『오바스테(姨捨)』의 경우 그 중 어느 전설이 전거(典據)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내용상 가장 가까운 것은 『俊賴髓脳』쪽이긴 해도 『오바스테(姨捨)』 탄생의 전거로서 참작할 만한 근거는 희박하다. 노(能)의 대성자 제아미(世阿彌)가 작품 집필의 기본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전거중시 사상이지만[5], 그 전거의 소재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작품이다.

이 작품의 모태가 된 「오바스테 전설(姨捨傳說)」의 개요는 <부모를 잃은 조카를 자식처럼 키워준 노녀가 나중에 늙고 추해지자 그 조카의 등에 업혀 姨捨山 속에 버려져 달을 벗 삼아 외로이 죽어갔다>는 내용이다.

이 전설은 버려진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유형과 그냥 버려진 채 姨捨山 봉우리 위에 떠오른 보름달을 벗 삼아 외로이 죽어갔다는 유형으로 크게 나뉜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유형 쪽은 노파를 버린 조카가 마음을 고쳐먹고 되찾아왔다는 것이고, 그냥 산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쪽은 그냥 버려진 채 달빛을 위안삼아 고독하게 삶을 마쳤다는 이야기이다. 앞에서 든 『俊賴髓脳』가

5) 제아미는 『三道』<能作書条々>에서 전거를 「혼제쓰(本説)」라 하여 고전적 향기를 작품 속에 내재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이 여기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후자의 유형에 속하며, 『오바스테(姨捨)』의 대사도 후자의 내용에 준하고 있다.

그렇게 깊은 산속에 버려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죽어갔지만, 노녀의 곁에는 때마침 떠오른 명월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다. 『古今集』巻十七에는 이 전설 관련의 노래가 작자미상으로 실려 있어 관심을 끈다.

> 나의 마음을 달래기 어렵구나 사라시나(更科)여
> 姨捨山 위에 빛나는 달을 보니
> (わが心なぐさめかねつ更科や姨捨山に照る月を見て)

산위에 뜬 명월을 보고 마음 달래기가 어렵다니 왜 그런지 그 사유가 궁금해진다. 달을 보고 그러하다니 그 사유가 달빛과 관련이 깊은 것만은 분명하다.

깊은 산속에 버려져 홀로 죽어가는 극단적 공포와 고독 속에서 오로지 달빛만 벗 삼으며 생을 마감했다 하여 학자들은 그녀를 「脫俗한 老女[6]」「인간세상을 벗어나 정화된 아름다운 別世界의 老女[7]」라는 식으로 美化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러한 시각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전개되는 『오바스테(姨捨)』노녀의 대사에는 그리 美化해서 볼 수만은 없는 암울한 어조도 많이 포착되어 그러한 측면도 놓쳐서는 안 되리라 싶다.

작품 속에 투영된 그녀의 모습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이 부각된다. 姨捨山 위에 떠오른 명월과 관련해서는 한껏 고조되는 분위기를 띠며, 버려진 기억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서는 암울한 어조로 움츠러든다. 극단적 고독과 어둠의 공포를 잠시나마 달래줬던 달에 대한 밝은 기억과 그 잔인한 고립기억으로 인해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을 트라우마가 아울러 반영된 모습이라 하겠다. 따라서 「탈속(脫俗)한 노녀」라든가 「정화된 아름다운 別世界의 노녀」라는 식의 관점은 『오바스테(姨捨)』노녀의 이중적 내면을 놓친 편협한 시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하 이러한 그녀의 내면의 추이를 작품의 전개에 따라 포착해 보기로 하겠다.

작품의 구성은 [複式夢幻能]이니만치 전장과 후장의 두 장 구성으로 되어 있

6) 伊藤正義 校註, 日本古典集成『謡曲集上』, [各曲解題] p.419.
7) 小山弘志 等 校註, 日本古典文学全集『謡曲集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전장의 주인공은 마을 여인을 가장한 『오바스테(姨捨)』의 노녀이고, 후장의 주인공은 노녀의 망령 그 자체이다.

먼저 전장에서는 마을 여인을 가장한 노녀가 곧 뜨게 될 보름달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는 대사를 읊는다. 상대역인 와키(ワキ) 일행은 姨捨山이 달구경의 명소임을 알고 멀리 교토(京都)로부터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이다. 달을 좋아하는 인물들끼리 짝을 맞춘 설정인 셈이다.

먼 길 마다않고 달구경 왔다는 와키는 노녀가 마을 사람인 줄 알고 姨捨山에 얽힌 전설에 관해 무심코 묻는다. 순간 명월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조되어 있던 그녀의 어조는 일전하여, 이후 한동안 싸늘한 냉기가 감돈다. 그녀의 내면에 명월을 반기는 심정만이 아니라 버려진 기억이 남긴 심상(心傷)의 흔적도 함께 남아있음이 처음으로 감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런 냉기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상대가 달구경이 좋아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온 풍류객이란 걸 알고는 다시 화색이 감돈다. 나중에 달이 뜨면 달빛 아래서 야유(夜遊)의 상대가 되어주겠다는 말까지 한다.

달빛 아래에서 멀리서 온 남성 풍류객의 밤놀이(夜遊) 상대가 되어주겠다는 말은 여성이 예사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에 의구심이 든 와키는 노녀의 정체를 묻는다. 노녀는 물어주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자신이 바로 「그 유명한 오바스테 전설의 주인공(名にし負ひたる姨捨のそれ)」이라고 그리 주저함 없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출현 이유까지 언급한다.

> 그 옛날도 버려져서 홀로 이 산에, 청명한 명월 뜨는 가을마다, 執心의 어둠을 걷어내고자, 오늘밤 모습을 드러낸 것이오.
> (その古も捨てられて、ただひとりこの山に、澄む月の名の秋ごとに、執心の闇を晴さんと、今宵あらはれ出でたり)

執心의 어둠을 걷어내고자 명월 뜨는 가을마다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추(仲秋)의 보름달이 뜰 적마다 나타난다는 얘기니 연중 단 한 차례만의 이승 나들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 셈이다. 연중 가장 아름다운 보름달로 간주되는 팔월보름달이 뜰 적에만 나타난다니, 달빛에 執心의 어둠을 걷어내는 모종의 힘이 있다고 기대하는 그녀의 신앙체계의 편린이 엿보인다. 執心의 어둠을 걷어낸다는 것은 불교적 구제를 향한 내면적 장애를 제거한다는 뜻이니, 달빛에 그 내면적 장애 제거의 효과가 있음을 믿어, 그 절정의 효과가 기대되는 팔월보름달이 뜰 적마다 이승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되겠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노녀는 일단 모습을 감춘다. 유령이라는 것을 밝힌 후에는 대개 와키의 시야에서 사라져 종적을 감추는 무겐노(夢幻能) 전장 주인공의 일반적 패턴에 따른 것이다.

후장에 가서는 온통 보름달 관련 대사 일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와키 일행이 달빛을 상찬하는 대사를 외며 분위기를 띄우고, 이어서 후장 주인공인 노녀의 유령이 흰옷 차림으로 등장하여 명월의 가절(佳節)을 만난 벅찬 감격을 토로한다. 연중 단 하루의 기회이니만치 「아, 정취 있는 가절이로고(あら面白の折からやな)」라며 등장하자마자 외치는 그녀의 대사에는 극도의 감흥이 전해지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이 중추절도 지나버리겠지(明けばまた秋の半ばも過ぎぬべし)」라며 벌써부터 이 시간이 지나버릴 것에 대한 아쉬움까지 내비치는 것은 그만큼 오늘밤의 시간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노녀의 등장에 와키는 꿈인가 생시인가 놀라워하고, 노녀의 유령은 꿈이 아니라며 전장에서의 그 노녀가 부끄럽지만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힌다. 그리고는 전장에서 약속했듯이 함께 달구경 야유(夜遊)의 벗이 되어 풀밭 위에 둘러앉는다.

달구경을 함께 할 벗들과 둘러앉은 노녀는 반가웠던 듯 금세 친해졌다. 그러나 달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밝지만은 않다. 늘 명(明)과 암(暗)의 두 갈래로 찢어지고 있다. 그녀의 마음은 명월에 대한 기대감에 밝아지다가도 그 옛날 홀로 버려졌던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며 어조가 이내 가라앉고 만다. 밝은 기대감은 이상이며 어두운 기억은 현실이다. 그녀는 이 어두운 현실을 자각할 적이면 다음과 같이 수치심으로 한없이 움츠러든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 옛날에도 버려졌던 노추(老醜)의 처지를 망각하고, 또다시 姨捨山에 출현하여 달빛 아래서 얼굴 드러내는 것도 부끄럽구나.

(昔だに捨てられしほどの身を知らで、また姨捨の山に出でて、面を更科の、月に見ゆるも恥かしや)

버려졌던 사유가 노추에 있었으니 그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각한 노녀로서는 그것이 달빛 때문에 환히 드러나는 것을 꺼릴 만하다. 자신의 늙고 추한 외양이 달빛으로 그대로 드러나, 행여 지금의 달구경의 벗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마저 들 수 있다. 노녀는 또다시 버림받아 홀로 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은 연중 가장 밝은 팔월보름달이 뜬 데다 달구경의 벗들과도 함께 있는 자리. 그러니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여겼는지 노녀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추스르며 밝은 어조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그래, 좋아. 무슨 일이든 덧없는 꿈과 같은 이 세상. 차라리 말하지도 생각지도 말자. 그저 화초나 즐기고 달의 정취에 젖어 놀기나 하자.

(よしやなにごとも夢の世の、なかなか言はじ思はじや、思ひ草花に愛で、月に染みて遊ばん)

달빛의 정취에만 빠져들겠다는 그녀의 의도대로 이후의 그녀의 대사에는 한동안 명월 관련의 내용만 이어져 그늘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달빛의 정취에 심취해 간 그녀는 점차 흥이 고조되어 갔는지 급기야 환각의 도취경에까지 이르는 양상마저 띤다. 이른바 「정토환상(浄土幻想)」이라 하겠으며, 극락정토를 도취경 속에서 환시(幻視)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 환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대사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삼광(三光[8])이 서쪽으로 향함은 중생을 서방으로 이끌기 위함이라지. 달은 그 아미타여래의 우측 협사(脇士)로서 불연(佛緣)이 있는 자들을 특히 인도하며 무거운 죄를 가볍게 하는 더없는 힘을 지녔기에 대세지(大勢至)라 부른다던가.

8) 해, 달, 별 등의 세 가지 빛을 가리킨 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さるほどに、三光西に行く事は、衆生をして西方に、勧め入れんがためとかや。月はかの如来の、右の脇侍として、有縁を殊に導き、重き罪を軽んずる、無上の力を得る故に、大勢至とは号すとか)

여기에는 달을 아미타여래의 우측 협사(脇士)인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로 간주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는 전후의 문맥상 노녀의 내면에서 시작된 종교적 도취경을 암시하는 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이후 노녀의 대사는 모든 것이 더없이 좋고 화려한 극락정토의 모습을 세세히 묘사하는 내용으로 한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녀는 달빛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나머지 극락정토로 왕생한 착각에 잠시 빠진 것이다. 비록 잠시나마 구제된 착각 속의 지복(至福)을 누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취경 속의 정토환상은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 그녀가 잠시 누렸던 착각 속의 지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극락정토를 그리며 달빛을 대세지보살의 구제의 손길로 착시하던 그녀는 다음과 같은 대사를 통해 정토환상으로부터 깨어남을 암시한다.

그 빛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무변광(無邊光)[9]」이라 부르기도 한다네. 그러하나 雲月이 때로는 차고 또 때로는 이지러지곤 하는데, 이는 유위전변(有爲轉變)의 섭리로 움직이는 세상 만상의 무상(無常)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네.

(光も影もおしなべて、至らぬ隈もなければ、無邊光とは名づけたり。しかれども雲月の、ある時は影満ち、またある時は影欠くる、有為転変の世の中の、定めのなきを示すなり)

여기서 「雲月」이라 함은 구름으로 가려진 달로, 구름을 세속적 번뇌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에, 세속적 육안으로 바라보는 현실 속의 달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다. 달을 극락정토의 대세지보살(=무변광보살)로 여기다가 세속적 현실 속의 달인 「雲月」로 직시함은 도취상태로부터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잠시나마 맛보았던 정토환상은 비록 일시적 희열에 불과했지만 노녀로서는

9)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의 별칭으로 「무변광보살(無邊光菩薩)」이라 부르기도 함.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너무도 달콤한 순간이었다. 『오바스테(姨捨)』노녀의 執心의 근원은 여기에 있으며, 그녀의 망령이 연중 단 한 차례의 이 순간만을 기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잠시 동안의 지복(至福)을 맛보았던 그녀는 구름에 가려진 「雲月」을 직시하는 순간 세상의 무상함에 다시 한 번 진저리친다. 姨捨山의 달은 노녀의 망령으로 하여금 정토환상으로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로운 환영(幻影)으로서의 현실 속으로 내팽개치는 냉혹한 매체이기도 하다.

현실로 되돌려진 노녀는 너무도 대비되는 극단적 체험의 허탈함을 채워 보고자 옛날 그리움에 젖어들어 본다.

> 옛날 그리워 夜遊의 춤사위
> (昔恋しき夜遊の袖)

정토환상으로부터 현실 속으로 되돌려진 그녀의 허탈함을 채워줄 「옛날(昔)」이란 버려졌던 때일 리는 만무하고, 그 훨씬 이전의 시점이 되겠다. 어린 조카를 데려다 부모 대신으로 키우며 오순도순 행복했던 시절도 분명 있었을 것이므로 그 추억이 노녀로서는 못내 그리운 것이리라. 이 대목은 작품 구성상의 클라이맥스가 되겠으며, 여기서 그녀의 갖가지 상념들을 한꺼번에 실은 [序ノ舞]의 춤을 한 바탕 춘다. 그 상념들이란 이승에서의 갖가지 추억뿐만 아니라, 망령이 되어서 연중 단 한 번 이승에 나아왔다가 겪는 달빛 관련의 극단적 체험도 아울러 결부된 상념이 되겠다. 따라서 이 춤을 추는 연기자에게는 그러한 그녀의 갖가지 상념들을 한꺼번에 실은 춤이라는 인식을 관객들에게 안겨줄 책무가 부여되며, 그 책무의 이행 여부에 그 날 연기의 성패가 좌우된다 하겠다. 그래서 『오바스테(姨捨)』를 감상하는 관객들로서는 가장 눈여겨 볼만한 연출상의 절정을 이 대목에서 찾는다.

그렇게 무거운 의미가 담긴 춤을 느릿느릿 한 바탕 추고 난 노녀는, 그 옛날 산속에 버려졌을 때 읊었다는 「나의 마음을 달래기 어렵구나 사라시나(更科)여 姨捨山 위에 빛나는 달을 보니(わが心なぐさめかねつ更科や姨捨山に照る月を見て)」를 다시 한 번 읊는다. 버려졌을 당시에 달을 보고 왜 마음 달래기 어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했는지는 여전히 잘 알 수가 없으나, 『오바스테(姨捨)』작품 속에서 노녀가 달 관련의 상반된 체험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이유가 상당 부분 납득이 된다. 위안을 얻고자 일 년을 기다려 이승의 팔월보름달 아래 모습을 드러내지만 언제나 냉엄하게 현실 속으로 되돌려지니 마음 달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노녀에게 있어 姨捨山의 달이 갖는 이중적 의미로 인해 노녀가 어쩔 도리 없이 겪어야 되는 숙명적 어려움이기도 하다. 그 숙명을 알면서도 『오바스테(姨捨)』의 노녀는 팔월보름달이 뜰 적이면 어김없이 이승의 姨捨山에 출현해 나올 운명에 처해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자신의 운명 아는지 노녀는 자신의 하릴없는 집착을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 잠시 동안에 대체 뭘 어쩌겠다고 출현해 나와서 덧없는 꿈속의 호접(胡蝶)처럼 춤추고 놀곤 하는 것이냐
> (露の間に、なかなか何しにあらはれて、胡蝶の遊び、たはぶるる舞の袖)

그처럼 스스로의 집착을 자책하면서도 「그리운 것은 옛날, 잊지 못할 것은 이승에서의 가을날들과 벗들(恋しきは昔、偲ばしきは閻浮の秋よ友よ)」이라며 다시 옛날 그리움에 한껏 젖어들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만 가 어느덧 날이 밝아오는 동틀 녘이 되어버렸다. 노녀가 이승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온 셈이다. 날이 밝아오자 나그네들도 돌아가고, 작품도 종막을 고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 홀로 버려져서 노녀가,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또 버려져서, 姨捨山 이름대로 되어버렸네. 姨捨山이 되어버렸네.
> (独り捨てられて老女が、昔こそあらめ今もまた、姨捨山とぞなりにける、姨捨山となりにけり)

늘 그래왔듯이 노녀가 홀로 남아,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버려졌다는 것이다. 「脱俗의 老女」「정화된 아름다운 別世界의 老女」라는 식으로 미화할 만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모습은 찾기 어려우며, 외로운 고영(孤影)만이 허공에 떠서 연민의 정을 모은다. 근세의 방랑시인 바쇼(芭蕉)가 여행 중 姨捨山의 달을 보며 지었다는 하이쿠「외로운 孤影/ 노녀가 홀로 울어/ 달구경의 벗(おもかげや/姨ひとり泣く/月の友)」도 그러한 연민의 정으로 읊은 것이라 보면 되겠다. 결국 홀로 남겨질 것을 알면서도 달에 이끌리어 姨捨山에 나타나 도취경의 희열을 잠시 맛보고 또다시 버려지기를 반복하는『오바스테(姨捨)』의 노녀. 바쇼는 그녀의 그런 외로운 고영(孤影)이 안쓰러워, 스스로 달구경의 벗이 되어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4. 맺으며

이상 노녀를 주인공으로 한「複式夢幻能」두 작품에 그려진 주인공의 내면을 살펴보았다. 그 주인공들은 모두 이미 오래 전에 죽어 타계에 간 인물들로서, 이승의 세계에 남긴 모종의 執心으로 인해 이승을 잊지 못하고 이승의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내곤 하는 존재들이다.

먼저『히가키(檜垣)』의 노녀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녀는 소시 적 삶을 회고하면서 종종 긍지와 죄의식이란 양면적 인식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었다. 유명했던 무희로서의 명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한편으로, 그 유명세만큼이나 뭇 남성들의 마음을 미혹의 수렁에 빠지게 한 죄 또한 컸다는 죄의식도 아울러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노경에 그러한 자신의 소시 적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내고자 하여 멸죄수행을 위한「급수행(汲水行)」의 노력을 죽을 때까지 기울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 멸죄수행을 위한 급수의 수행을 하던 중 잊지 못할 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은 후지와라 오키노리(藤原興範)라는 자의 방문 사건이었다. 그는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자 잠시 들렀었는데, 물 한 모금을 청한 노녀가 그 옛날 和歌와 춤으로 명성이 드높았던 히가키라는 사실을 알고는 춤을 한번 추어 보여 달라고 졸라댔던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히가키 노녀로 하여금 집심을 품게 하여 이승에 남긴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고 말았다. 주저주저하면서 추기 시작한 춤이 노경에 꽃피운 아름답기 그지없는 「老木의 꽃」이 되었던 것이다. 노녀로서는 기억의 저편에 잊고 있었던 줄만 알았던 예능인으로서의 프라이드가 되살아나는 희열을 맛보게 된 순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건 관련의 추억에 대한 강한 執心을 품게 되었고, 죽고 나서 지옥에서 치르게 된 업고의 근본적 원인이 되기까지 했다. 지옥에서의 업고가 그토록 견디기 어렵다면서도 그녀는 그 執心을 포기하지 못했다. 실로 질기고 강한 執心이라 아니 할 수가 없으며, 이 작품 주인공의 본모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녀의 執心 양상부터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오바스테(姨捨)』의 노녀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녀는 『히가키(檜垣)』노녀만큼 심각한 執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노녀에게는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할 당시에 너무도 끔찍한 순간을 맞이했던 경험이 있다. 깊은 산속에 홀로 버려져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다. 이 체험은 夢幻能의 여느 주인공들이 지옥에서 받는다는 그 어떤 업고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싶을 만큼 끔찍하다. 그래서인지 이 노녀의 경우 죽어서 망령이 되었다지만 지옥에서 받는다는 고통 관련의 언급은 전혀 없다. 지옥에서의 고통마저 더해진다면 가혹함이 가중되어 작품의 재미를 오히려 반감시킬 수 있다는 작자 나름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 같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죽음의 공포를 때마침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이 달래줬다. 달은 죽음과 어둠의 공포를 달래줬을 뿐만 아니라 홀로 버려진 노녀의 유일한 벗이 되어 주기도 했다. 그래서 姨捨山의 달은 노녀에게 더없는 마음의 위안을 줌과 동시에 정토환상을 착시하는 잠시의 희열까지 그녀에게 안겨주는 존재로 발전했다.

『오바스테(姨捨)』의 노녀는 그 잠시 동안의 정토환상이 안겨다주는 희열을 잊지 못한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혼자가 될 것을 알면서도 팔월보름달이 뜰 적이면 어김없이 姨捨山에 모습을 드러낸다. 홀로 버려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그녀이지만 姨捨山 위의 보름달이 안겨다주는 그 잠시의 희열을 그녀는 언제까지나 포기할 수가 없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보면, 『히가키(檜垣)』와 『오바스테(姨捨)』에 등장하는 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노녀의 망령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그녀들이 죽음의 세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신체적 노쇠의 한계를 넘어 강한 執心을 보인다는 것이다. 노녀들이 보이는 집착의 강함은 제아미가 지향했던 「老木의 꽃」에 대한 지향성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창 때를 지나 살짝 시든 잔국(殘菊)을 더욱 기리는 전통 미의식이 엿보이는 다음과 같은 운문의 세계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지향성임에 틀림없겠다.

> 가을 말고도/ 한창때가 있는가/ 국화꽃잎은/ 빛바래고 나서/ 더한층 고와지니
> (秋をおきて/時こそ有けれ/菊の花/うつろふからに/色のまされば)
> (古今, 秋歌下, 279)

그처럼 노쇠한 신체의 한계나 죽음의 고통까지 극복하여 강하게 표출되는 노녀들의 執心은, 빛바래고 나서 더한층 고와지는 잔국의 경우처럼 「老木의 꽃」이 되어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개화하는 것이리라. 이 노녀들을 연기하는 연기자들은 이와 같은 그녀들의 내적 측면에 실린 삶의 무게까지도 잘 표현하여야 할 것이며, 그 연기의 녹록치 않음이 서두에서와 같은 연기자들의 노녀 연기에 대한 경외심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리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日本思想大系23『古代中世芸術論』, 岩波書店, 1973.
境野黄洋『法華経講義』, 名著出版, 1986.
伊藤正義 校註, 日本古典集成『謡曲集上』, 新潮社, 1979.
小山弘志 等 校註, 日本古典文学全集『謡曲集一』., 1983.

❖ 투고일 : 2014.07.04
❖ 심사완료일 : 2014.08.03
❖ 게재확정일 : 2014.08.12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能に描かれている老女たちの生と死

金忠永

老女が主人公になっている夢幻能には、『檜垣』と『姨捨』の二つの作品がある。本稿は、この二作の主人公の老女に分析の焦点をあて、詞章の中に描かれている彼女たちの生と死について考えてみ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檜垣』の老女の場合、地獄で業火の苦しみを激しく受けていながらも、この世での晩年に唆かせたある出来事を忘れることができず、それへの最たる執心を向けており、まさに死の世界の苦痛をも乗り越えた強い執着心を見せていると言える。次に『姨捨』の老女の場合は、『檜垣』の老女のような激しい執心は見えないものの、死と孤独の恐怖を乗り越えて月下の浄土幻想へ執着し、姨捨山の上に八月十五夜の月が出る度ごとに出現して来ることを放棄しようとしない。いずれの老女の場合も死の世界からの恐怖を乗り越えており、その姿を通して生への強い愛着のメッセージを観客たちに伝えているようで興味深い。

Key Words：檜垣、姨捨、死の苦痛、孤独、浄土幻想、八月十五夜の月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The Life and Death of Old Women in Noh

Kim, Choong-young

There are two works in Mugen-noh in which the heroine is an old woman: "Higaki" and "Obasute". This paper analyzes the elderly female heroine in the two works, and attempts to reflect on her life and death. In the case of the old woman in "Higaki," it is impossible, even though they suffered violently in the fires of Hell, to forget certain events that bloom in the twilight of life in this world. It can be said that she is facing a prime devotion to this certain event, and is showing a strong obsession that has overcome even the pain of death. Next, in the case of the old woman in "Obasute," she does not appear to have a violent obsession, such as the old woman of "Higaki," but is obsessed with the Pure Land fantasy. To overcome the fear of loneliness and death, she never failed to appear every time the August full moon shone. The content of their obsessions is slightly different, but the old woman who appeared in both works each have to overcome the fear of death. They can be said through the appearance of such, and communicate to the audience the message of strong attachment to life.

Key Words : Higaki, Obasute, the pain of death, loneliness, Pure Land fantasy, August full moo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